

개봉 전 미리 만나는 영화<김복동>

‘찾아가는 영화토크, 그 네 번째 이야기’ 개최!

- 강원영상위, 전국개봉 앞둔 영화<김복동> 강원도민 100여명 초청 특별 시사회 개최
- 송원근 감독, 김동희 관장 자리해 관객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토크 행사 마련
 - 오는 8월 6일(화) 오후 7시 CGV춘천명동서 개최
 -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서 7월 31일(수)까지 사전신청 접수 중

□ 강원영상위원회(위원장 방은진)는 오는 8월 6일(화) 오후 7시 CGV 춘천명동에서 영화 <김복동>을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‘찾아가는 영화토크(이하 영화토크)’를 개최, 강원도민 100여명을 특별 초청한다.

□ 이번 영화토크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상황에 따라,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니자는 뜻에서 마련되었다. 오는 8월 8일에 전국개봉을 앞둔 <김복동>을 개봉 전 미리 특별 상영하고 감독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김동희 관장이 관객들과 함께 자유로이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.

□ 영화 <김복동>은 여성인권운동자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1992년부터 올해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한 27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. <자백>, <공범자들>에 이은 뉴스타파의 3번째 작품으로 송원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한지민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했다.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 스케이프 부문에 초청받아 주목할 만한 다큐멘터리로 꼽혔다.

□ ‘찾아가는 영화토크’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도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입란을 작성하여 7월 31일(수)까지 신청하면 된다. 당첨자는 8월 5일(월)에 개별 공지된다.

□ ‘찾아가는 영화토크’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(www.gwfilm.kr)와 페이스북(<https://www.facebook.com/gogwfilm/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전화 문의는 기획사업팀(033-240-1379)을 통해 가능하다.

□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은 “올해 찾아가는 영화토크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영화를 선정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도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.” 며 “이번 영화토크에 많은 도민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영화를 통해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정민서 사원(☎033)240-13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찾아가는 영화토크, 그네번째 이야기

영화 "김복동"

2019.8.6.(화) 오후 7시



CGV 춘천명동

역사를 잊은
민족에게
미래는 없다



게스트 감독 송원근,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장 김동희

신청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문의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033-240-1379

주최  전북도  경북도  강원문화재단 주관  강원영상위원회